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판단이 어려운 거래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이 이러한 거래에 해당된다.

즉,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실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 경리실무자들은 거래상대방,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만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제3호는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지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용역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거래를 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서삼46015-10727, 2001.11.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면세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서삼-1505, 2007.05.16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